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9호 (2026.09.30)

■ 이 슈

(경제)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과
인천시 현황 및 시사점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9호 (2026.09.30)

Cotents

I. 이 슈

(경제)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과 인천시 현황 및 시사점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경제)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최초의 법정계획 수립 11

(경제) 9월 11일부터 '사망자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정식 가동 11

(경제)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은 확대 12

(경제) 2027년부터 과도한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적용 · 12

(산업) 정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 ··· 13

(산업)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올해 120조 원, 2027년 140조 원까지 확대 13

(산업) 고용부, 9월부터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14

(산업)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보급에 경쟁입찰·고정가격 계약 방식 적용 ··· 14

연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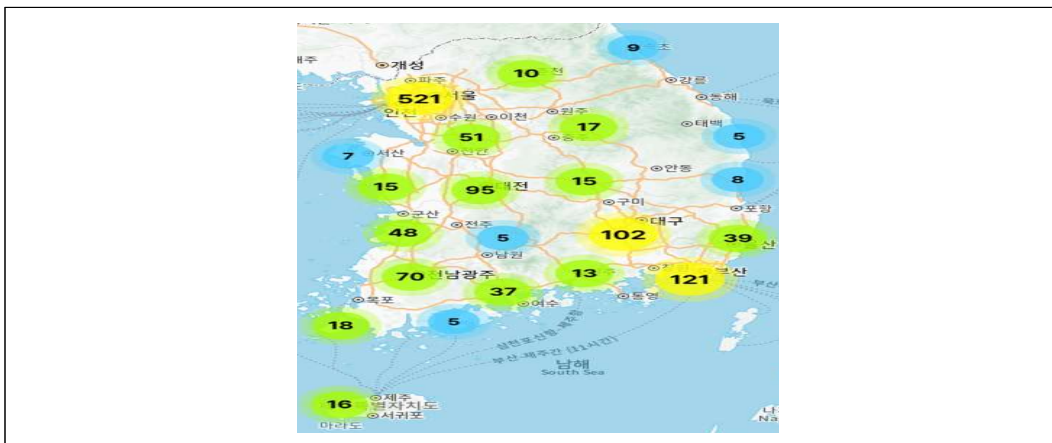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상민경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경제 >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과 인천시 현황 및 시사점

#인천시 #소상공인 #지역 상권 #상권 활성화 #로컬창업

- 국내 주요 상권은 유통성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나 최근 △경험 △가치 △K-컬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소비문화 및 지형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인천시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되는 지역 상업 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
- 소상공인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인 '소상공인365'에 따르면 전국 기준 국내 발달 상권은 1,227개¹⁾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528개, 지방에 699개 상권이 분포
 - 매출이 크고 유통인구가 많은 상위 10% 핵심 상권 123개 중 43개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으며, 유사한 인구분포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상권의 매출이 지방 상권의 4배 규모를 기록하는 등 지역 간 상권 불균형이 심각
 - 이에 2026년 3월 중앙정부는 상권 쏠림현상 극복을 위한 지역 상권의 전면적인 개편을 목표로, 로컬 창업과 투자·관광·제도 개편을 결합하는 내용의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²⁾을 발표
- 한편, 소비자의 관심사 확대 및 인식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소비활동이 △직접 체험을 통한 경험 축적 △신념에 따른 가치 추구 △한국만의 특색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변화 중
 - 이마트(emart)의 '과자 무한 골라담기' 이벤트, 선행을 베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들의 '돈쫓내기' 문화²⁾, 한국전통문화와 결합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박물관 굿즈(뮤즈, MU:DS) 등 과거와는 다른 기준을 따르는 소비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오프라인 상권 역시 '차별화된 특색'이 필요

* 자료 : 소상공인365(www.bigdata.sbiz.or.kr)

* 주 : 2026년 9월 11일 검색 기준. 현재 발달한 상권의 수로, 파란색 > 연두색 > 노란색 순으로 상권이 집중

[그림 1] 전국 발달 상권 현황

1) 2026년 9월 11일 확인 기준.

2) 자영업자가 사회적으로 선한 행동을 한 경우, 소비자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해당 자영업자가 판매하는 물건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여 선행에 보답하는 취지의 문화.

○ 정부는 2026년 3월 ‘온기가 지방으로 펼쳐지는 「모두의 지역상권³⁾」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지역상권육성 사업 △로컬창업 △임차 및 성장 자금 △기술 개발·제조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을 추진 중

- 동 추진전략은 ①수도권의 활력을 지방 상권으로 확산 ②‘지역다움’으로 강해지는 상권 조성 ③지역공동체의 자율·창의가 활발한 상권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상권의 점(로컬창업)·선(성장·집적)·면(확산)을 활성화하는 입체적인 지원 전략
- 금번 전략에서는 △활력상권의 씨앗인 로컬창업을 활성화 △민간 주도의 로컬기업 성장 및 골목상권 조성 △상권 활력확산을 위한 대표 관광상권 조성 및 제도 기반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통한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추진

[표 1]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주요 내용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아이디어로 충분한 모두의 ‘로컬창업’	• 매년 1천 개 로컬기업 육성 및 로컬 창업가 1만 명 발굴, 지역 지원 비중 90%까지 확대 • 권역별·분야별 로컬창업 멘토단 구성/운영 및 지자체 유희 공간을 활용한 로컬창업타운 확대 • ‘AI 도우미(상권분석, 노무·세무)’, ‘AI 네비게이션(컨설팅)’, ‘AI 교육과정’ 등 AI 서비스 신설·제공 • 지역 유희공간 DB 구축 및 관련 정보 소상공인 플랫폼에 제공 • 로컬기업 창업공간 임차를 위한 상가 임차전용 자금(100억 원) 신설
지역 문제 해결형 로컬창업 촉진	• 농어촌 원물 구매자금 지원 및 농촌로컬창업 육성,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운영지원 • 농어촌 빈집·빈건물의 창업공간 재생 및 로컬창업가 우선 입주 지원 • 인구감소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창업지원 • 지역공동체 문제 해결 로컬기업에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추진
민간 주도의 로컬기업 성장 촉진	• △LIPS 프로그램 확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도입 △로컬기업 전용펀드(최대 2,000억 원 규모) 조성 △지역별 전담 투자기관 지정 및 로컬기업 투자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시장성 기반의 투·융자 복합 성장자금 지원 • 기술개발 제조역량 강화·위탁제조·IP 창출 패키지 지원 •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그램 신설을 통한 수출 상품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로 다각화
로컬기업이 조성하고, 지역기업이 돕는 골목상권 K-컬처를 즐기는 대표 관광상권 조성	• 지역특색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터잡은 로컬앵커기업이 주도해 유망 창업기업 유치 및 동반성장 • 지역 전문투자사, 지역 금융회사·소비재유통기업을 연계한 상생모델 확산 및 상생실적 인센티브 부여 • 외국인이 전국을 즐길 수 있게 K-컬처 연계 지방 대표 관광상권 17개 조성 • 지방의 미식·전통·문화유산·체험활동 등을 소비하는 ‘로컬 테마상권’ 및 ‘백년시장’ 조성
상권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강화	• 상가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화,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 체결 등을 통해 소상공인 내몰림 최소화 • 상권의 특색있는 자원⁴⁾을 보존·유지·확산하는 지방정부 국비지원사업 등 지원 우대 •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브랜딩, 판로 등 체계적 지원 • 권역별 상권기획 전문회사 육성 및 상권혁신펀드 조성 등을 통해 상권혁신을 위한 인프라 강화

*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6.03.25.) 참고 및 재구성

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의미)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의미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에 따라 지역상권 중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등의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을 지정. 한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상권’을 전통시장,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연결한 지역으로 정의하며, 전통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함.

4) (예시) 전통·역사(한옥, 적산가옥), 건축자산(붉은벽돌), 산업유산(폐공장·굴뚝, 목욕탕) 등

○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상권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지난 4월 ‘2026년 지역상권 육성사업’을 공고하여 올해 말까지 상권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백년시장 사업’, ‘2026년 혁신 소상공인 통합 오디션’ 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

- ‘지역상권 육성사업’은 지역자원·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상권을 발굴하여 국내·외 방문객들이 쇼핑·체험·관광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상권 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글로벌상권 △로컬테마상권 △유망골목상권 등 3개 분야⁵⁾의 총 66곳 내외를 지원
- 공모에 선정된 글로벌상권 및 로컬테마상권에는 2년간 1곳당 최대 40~5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상권 콘텐츠 창출 △로컬 창업자 유치·보육 △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유망골목상권에는 로컬기업 집적지 및 골목형 상점가가 상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1곳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할 예정
- 이 외에도 70년 이상의 세대를 이어온 역사와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전통시장 10곳을 ‘백년시장’으로 선정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한 환경개선 및 상품 개발 등을 추진
- 또한 지역의 특색을 갖춘 점포를 육성하여 정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혁신 소상공인 통합오디션」을 개최하여, △로컬 창업기업 육성(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 △기술개발 지원(소상공인 창업성장R&D) △글로벌 진출지원(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
- 중기부는 동 오디션을 통해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유망 소상공인 534개를 선정하여 최대 6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으며, 지난 9월 파이널 오디션을 개최하여 혁신 소상공인 11곳을 선정하여 시상을 진행⁶⁾

[표 2] 혁신 소상공인 TOP 11 중 일부 기업 소개

구분	지역	선정 사유
고원농산 영농조합법인	강원 정선	• 강원 정선 청정 곤드레를 수확 후 2시간 내 급속 냉동해 번거로운 조리 없이 맨밥에 바로 비벼 먹을 수 있게 한 간편 건강식 브랜드
파머씨드	충남 논산	• 특허 포장 기술을 기반으로 파손 없는 전국 배송 체계를 구성하여 최대 육묘 생산지인 논산과 전국 소비자를 직거래로 잇는 온라인 모종 유통 플랫폼 구축
프로제 산내 (Projet Sanne)	부산	• 증조할머니부터 운영한 경주시 산내면의 60년 전통 방앗간 이야기를 활용하여 부산에서 제조·체험·전시를 결합한 문화예술형 참기름 브랜드 운영
베이커리이와정	충북 충주	• 충주 산나물과 48시간 발효 공정을 기반으로 깊은 풍미와 소화가 편한 갸뽕 뉴를 생산하여, 충주 산나물의 향과 기능성을 접목한 지역특화 베이커리
푸른콩방주 영농조합법인	제주	• 소멸 위기에 처한 제주 푸른콩을 활용한 푸른 콩장, 간장, 고추장의 판로를 개척하고 씨앗을 로열티 없이 나눔으로써 생태계의 다양성과 보존에 기여
농업회사법인 안동반가 주식회사	경북 안동	• 국내 최초 100% 안동 생강과 직발효·증류 특허기술 및 오크숙성 공정을 융합하여 진저오크 생강 브랜드 개발
진가다감	울산	• 울주군 낙과와 비상품 과일을 저온 농축·효소 처리한 시럽화 원료로 전환하여 설빙, 양갱, 다식 등 저당도 프리미엄 디저트 생산·판매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6.09.10.) 참고 및 재구성

- 5) ‘글로벌상권’ 분야는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을 접목하여 국내외 방문객이 관광·체험·소비 등 K-컬처를 소비하는 글로벌 관광상권으로 육성하는 지원사업, ‘로컬테마상권’ 분야는 지역의 미식·문화유산·체험활동 등을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체험·소비형 특화상권으로 육성하는 지원사업, ‘유망골목상권’은 지역사회 생활거점인 골목형 상점가 등에 로컬 창업, 마케팅·브랜딩, 인프라 등을 지원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원사업.
- 6) 파이널 오디션 TOP 11곳을 비롯한 오디션 참가기업에는 유형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4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민간 투자사 미팅/국내·외 판로/신시장개척자금 등 수요에 맞는 후속지원도 적극 연계할 계획.

- 2025년 기준 인천시 시민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전년대비 2.1% 증가하였으나, 인천 시민의 역외 소비액 비중이 전체 소비액의 약 33.3%에 달하고 지역 상권의 대표 소매업종인 음식점업의 폐업 건수가 개업 건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 상권의 활력은 다소 둔화한 상황⁸⁾
- 2025년 기준 인천 시민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28.3조 원을 기록했으나, 이중 약 33.3%가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등 높은 역외 소비율을 보이는 상황
 - 인천 시민의 소비액은 관내(전년대비 1.8% 증가)보다는 관외(전년대비 2.6% 증가)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 인천 시민의 관내 업종별 신용카드 결제액을 살펴본 결과 △숙박(-4.2%) △종합 소매(-4.2%) △여가·오락(-4.2%)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
 - 역외소비액 규모는 △식음료점(22.8%) △종합 소매(19.7%) △보건·의료(13.7%) △기타 소매(12.7%) 등 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식음료점의 역외 소비 유출의 경우 관내 매력적인 소비처가 부족하고 역외취업 비중이 높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가능
 - 지역 상권의 대표 업종인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개·폐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천시는 2014년~2023년 기간 동안 음식점 개업 건수가 폐업 건수보다 많았으나, 2024년~2025년은 폐업 건수가 개업 건수를 추월
 - 2025년 기준 인천시 음식점업 폐업률은 20.1%로 전국(17.8%) 및 서울(17.9%)·경기(19.5%)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표 3] 업종별 인천 시민의 역내·외 소비(2025년 기준)

(단위 : 십억 원, %)

구분	인천 시민 소비	인천 내 소비	인천 외 소비	업종별 역외 소비율	역외 소비 기여율
인천시 합계	28,322	18,882	9,440	33.3	100.0
가전·가구·의류	1,490	680	810	54.3	8.6
교육	1,167	988	179	15.3	1.9
기타 소매	3,877	2,681	1,196	30.8	12.7
문화·관광	169	87	82	48.3	0.9
보건·의료	4,500	3,205	1,295	28.8	13.7
생활서비스	1,037	533	505	48.6	5.3
숙박	200	64	136	67.9	1.4
식음료점	5,979	3,828	2,151	36.0	22.8
식품류판매	1,478	1,126	351	23.8	3.7
여가·오락	1,116	665	451	40.4	4.8
인테리어	288	171	117	40.6	1.2
자동차·기계·장비	835	580	256	30.6	2.7
종합소매	6,029	4,166	1,863	30.9	19.7
주점	156	107	49	31.6	0.5

* 자료 : 신한카드 DB 인천시민 역내·외 소비데이터

7)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세통계-부가가치세-사업자 현황' 자료를 참고.

8) 본 단락은 인천연구원(2025.10)의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원이 보유한 신한카드DB의 통계자료를 최신 시점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작성.

- 인천시는 내수 경기 성장세 둔화와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로컬크리에이터⁹⁾ 육성 사업 △로컬 브랜드 육성 사업 △상권브랜딩 지원사업 △‘로컬 페스타’ 개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
- 인천시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관광공사, 인천콘텐츠코리아랩 등 관내 기관들과 협력하여 ‘인천’의 특색을 지닌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육성을 추진¹⁰⁾
 - 인천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3년~2024년 기간동안 ‘LET’S LOCAL 인천’, ‘I^Local’, ‘인천 청년 로컬 굿즈 앤 이벤트 스쿨’ 등 사업을 통해 관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지원
 -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원도심 로컬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제물포 웨이브 파트너스’¹¹⁾를 운영 중이며, 인천콘텐츠코리아랩은 인천을 브랜딩하는 로컬 굿즈를 제작·기획하는 창작 워크숍 프로그램(‘인천 로컬 굿즈 메이커톤’)을 운영 중
 -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인천 로컬 페스타’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기업·지역 호텔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인천시 방문객과 경유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2025 인천 로컬 페스타’에서는 약 70개의 전국 대표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여 각 지역의 특색있는 제품을 소개·시식·체험·판매하는 팝업 마켓 행사와 함께 인천 개항장 일대를 돌아보며 탐방하는 ‘인천 개항장 로컬브랜드 인사이트 투어’를 진행
 - 2026년 인천관광공사는 관광기업·여행사·지역 호텔과의 협업을 통해 인천 각지 호텔과 연계된 워크케이션 상품과 인천 관내 영종도·무의도·강화도 등에서 지역민과 교류하고 일상을 체험하는 상품 등 체류형 관광상품 8종을 공모·선정하여 운영 중
 - 2026년 들어 인천시는 다양한 상권지원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상권육성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 상권의 고유한 특성과 상인 공동체 협력에 기반한 오프라인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 인천시는 지역 상권의 경쟁력·자생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상권 브랜딩 지원사업’,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소공인 로컬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상권 및 기업을 지원 중
 - 인천 제물포구¹²⁾ 및 연수구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역상권 육성사업 유망골목상권 부문에 지원하여 ‘수문통 골목형상점가’ 및 ‘커널워크 골목형상점가’, ‘아트포레판매시설 골목형상점가’ 등 3곳이 선정

9)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또는 창업가를 의미.

10) 인천연구원(2025.10.).

11)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는 ‘제물포 웨이브 마켓(로컬 팝업스토어 마켓)’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물포 웨이브 파트너스는 인천시 원도심(개항장·월미도·동인천) 지역 내 소상공인과 로컬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모집.

12) 선정 당시 ‘동구’.



* 자료 : 인천스펙타클(2025), 인천관광공사(2026.07) 참고 및 재구성

[그림 1]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소비 활성화 정책사례

- 인천시는 그간 지역 상권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체로 일회성 지원 수준에 그쳤으므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사업화·성숙화와 지역 상권의 연계 측면에 집중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
 - 인천시는 지역 상권의 체질 개선 사업과 관내 유관기관 협력사업을 통해 외부 방문객의 인천시 유입을 촉진해 온 만큼, 향후에는 로컬창업 발굴과 인근 상권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상권 활력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정책 고도화 필요
 - 지속적으로 인천시를 찾는 방문·체류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만 보유한 지역 자원과 이야기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로컬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이 기존 상권과 조화롭게 연계·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
 - 인천시는 △자연(섬·해수욕장) △역사·문화(건축물·사적지·기념관·성당) △커뮤니티(축제·행사) △상업자원(신 포국제시장·부평지하상가·소래포구) 등 다양한 지역 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 창업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 및 고도화를 유도하고, 개별 사업자 발굴이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사업을 확충할 필요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에 따른 후속 사업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원도심·농촌지역 유희공간 정보 구축 및 활용 △인구감소지역(강화·옹진) 지역공동체 연계 사업 발굴 △지역 투자사·로컬창업기업 연계 사업 발굴 등을 준비하고, 로컬창업 기업이 중앙정부의 성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

제조 >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¹³⁾



- 2026년 8월 자동차 생산은 20.6만 대, 수출은 14.6만 대 수준을 기록하며, 조업일수 감소 및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 생산·수출이 모두 전년 동월 및 전월대비 감소¹⁴⁾
 - 8월 국내 자동차 신규 생산은 하계휴가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일부 업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5.8%, 전월대비 41.5% 감소한 20.6만 대를 기록
 - 내수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0.8%, 전월대비 21.1% 감소한 10.9만 대를 기록하였는데, 이 중 친환경차 판매량이 6.9만 대로 국내 시장에서 친환경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¹⁵⁾
 - 산업부는 주요 완성차 기업의 임금협상 타결 완료에 따라 9월부터는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물량이 만회되어 생산량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
 - 국내 자동차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대비 26.9%, 전월대비 40.3% 감소한 14.6만 대 수준으로,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동월대비 29.8%, 전월대비 38.3% 감소한 38.5억 달러를 기록
 - 주력 수출 시장인 북미(-28.2%)와 EU(-16.8%)에 더해 △아시아(-41.9%) △중동(-23.6%) 등 모든 지역에서 수출액이 감소

【표 1】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 내수판매, 수출 추이

(단위 : 대, 억\$, %)

구분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생산 (증감률)	360,504 (24.1)	278,250 (-21.0)	386,363 (4.5)	361,923 (-6.1)	329,533 (-8.2)	394,331 (11.6)	351,973 (11.3)	206,064 (-35.8)
내수 (증감률)	120,816 (14.0)	123,275 (-7.2)	164,810 (10.2)	151,693 (0.7)	127,308 (-10.3)	159,684 (9.5)	139,231 (0.5)	109,920 (-20.8)
수출 (증감률)	249,184 (23.4)	188,450 (-18.5)	259,439 (7.8)	245,456 (-0.8)	230,264 (-6.6)	268,351 (9.8)	245,313 (15.3)	146,499 (-26.9)
수출액 (증감률)	60.7 (21.7)	48.1 (-20.8)	63.7 (2.2)	61.7 (-5.5)	58.3 (-5.9)	67.1 (5.8)	62.4 (7.0)	38.5 (-29.8)
부품수출액 (증감률)	16.3 (3.9)	14.5 (-22.4)	18.0 (-2.4)	18.9 (-6.0)	15.5 (-3.0)	17.4 (-2.4)	19.5 (2.3)	15.0 (-9.8)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6.09.17)' 참고 및 재구성

* 주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13) 2026년 6월 1일부터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 품목 분류체계인 MTI코드가 변경됨에 따라, 수출입 통계의 항목 구분 및 실적 수치가 전반적으로 수정됨.

14)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6.09.17)'.

15) 최근 내수시장의 친환경차 판매 비중 : (6월) 59% → (7월) 60.5% → (8월) 62.6%.

- **(전국)** 2026년 7월 기준 국내 자동차산업은 생산은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전월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8월 기준 수출액은 모든 부문에서 동반 감소하는 등 자동차산업의 수출 경기가 다소 부정적
- **(생산지수)** 2026년 7월 전국 자동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 전월대비 8.8% 감소한 133.0으로, 2026년 들어 기준치(100) 이상을 지속하며 안정적인 호조세
 - 다만 자동차산업 재고지수는 2026년 7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했으며, 2026년 1월 127.5에서 7월 기준 144.5를 기록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
 - **(품목별 수출액)** '26년 8월 국내 자동차 부문 수출액¹⁶⁾은 전년동월대비 25.2%, 전월대비 34.5% 감소한 53.5억 달러로, 하계휴가, 임금협상 등 시기적 요인으로 인해 잠시 주춤
 -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수출액 증감률은 △기타 자동차(69.4%) △자동차부품(-9.9%) △승합차(-18.5%) △화물차(-26.3%) △승용차(-30.1%) △특장차¹⁷⁾(-34.7%) 순
 - 모든 부문에서 수출액이 전월대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승합차 수출액의 경우 2025년 5월 이후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지속되며 수출액이 크게 감소
- **(인천)** 2026년 7월 인천 지역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는 123.2, 8월 수출액은 4.2억 원을 기록하여, 자동차산업의 생산·수출 경기 회복세가 둔화
- **(생산지수)** '26년 7월 인천의 자동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1% 증가, 전월대비 6.9% 감소한 123.2로 연초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재고지수도 유사한 흐름
 - **(품목별 수출액)** 2026년 8월 인천의 자동차 부문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8.5%, 전월대비 46.3% 감소한 4.2억 달러로, 전국 추세와 유사하게 전월대비 급락
 -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수출액 증감률은 △기타 자동차(503.2%) △화물차(-2.4%) △자동차부품(-9.4%) △승합차(-12.3%) △승용차(-21.2%) △특장차(-26.9%) 순
 - 인천시 자동차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 수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산업 수출액이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

[표 2] 국내 자동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지역	항목	'26.04	'26.05	'26.06 (p)	'26.07 (p)	'25.07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자동차 제조업	130.6	123.2	145.8	133.0	120.3	-8.8	10.6
인천	자동차 제조업	132.6	123.9	132.3	123.2	112.9	-6.9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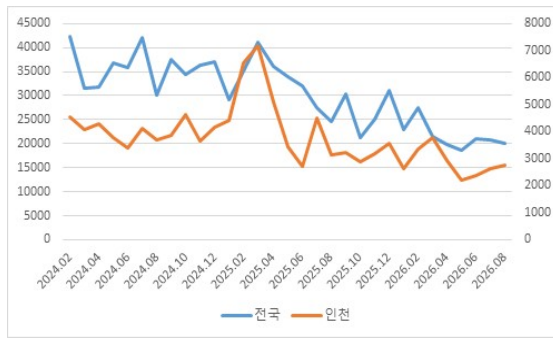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의 자료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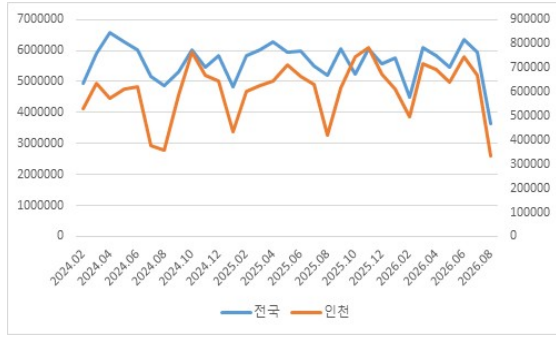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16) 승합차(MTI7412), 승용차(MTI7413), 화물차(MTI7414), 특장차(MTI7415), 기타 자동차(MTI7416), 자동차부품(MTI742)의 수출액을 더한 합계값을 의미.

17) 특장차에는 소방차, 도로청소차,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제설차 등을 포함.



[승합차(MTI7412)]



[승용차(MTI7413)]



[화물차(MTI7414)]



[특장차(MTI7415)]



[기타 자동차(MTI7416)]



[자동차 부품(MTI74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2 : 2021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승용차로 구분되었으나, 2022년부터 해당 기종이 기타 자동차로 분류되며 전국 및 인천 지표의 변동 확대

3 : 2026년 6월 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 품목 분류체계인 MTI코드가 변경되어 수출입 통계의 항목 구분 및 실적 수치가 전반적으로 수정

[그림 1] 자동차 품목별 수출 동향(2026.08)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6.07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53.0	2.7	118.0	-1.7	120.5	15.9	152.0	3.3	134.3	-9.0	504.9	79.0
자동차	133.0	10.6	129.9	9.0	144.5	7.8	123.2	9.1	115.3	9.8	141.6	-4.8
기계장비	116.1	9.6	116.0	6.4	138.4	9.6	108.5	-34.9	111.2	-22.2	114.2	-32.1
바이오-의약	186.2	10.8	177.4	24.8	-	-	403.5	34.9	258.1	125.8	-	-
바이오-화장품	92.2	0.2	91.5	-4.8	105.8	3.3	153.2	13.9	118.7	-2.6	120.0	12.5
건설 수주액 (억원, %)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공공		민간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31,053	-34.9	111,987	-19.7	1,139	-83.7	11,426	167.6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경제

▶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최초의 법정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 지난 8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최초의 법정계획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
- 금번 기본계획은 상품권의 발행·유통·이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5년 단위의 첫 국가단위 계획
 - 정부는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목표로, △체계적 발행 △편리한 소비 △합리적 관리의 3대 추진전략,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
 -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년도 총액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상품권의 목적과 사업별 관리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5개년 국비 지원 목표를 수립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교화
 - 또한 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유통지역을 행정구역에 한정하기보다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상품권 데이터를 표준화해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시스템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예정

경제

▶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정식 가동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의 협력에 따라 9월 11일부터는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정식 가동
- 그간 사망신고 기한 및 정보 공유 횟수 등의 한계로 인해 금융권에서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부정 금융거래 차단에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금번 신속차단 시스템 정식 가동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스템 구축·가동에 따라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하고,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사가 은행·보험·카드·증권 등을 아우르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어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필수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즉시 차단 가능
 - 금융거래 차단은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며, 사망자 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금융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 및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고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융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

#보건복지부

○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 건강보험료를 결정안' 및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

-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되었으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와 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
- 한편 건강보험 1단계 혁신방안에 따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체장장애 등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 확대 △당원병·신경인성 방광 환자 재택관리 지원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지원 확대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
 -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27년에는 7%, '28년 상반기 내 5%까지 인하되며,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
 - 중증 당뇨병 환자 대상 인슐린자동주입기 및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대상을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하고, 필수 기기의 본인부담률을 하향하는 한편 19~34세 청년은 지원금을 추가 상향할 계획
 - 당원병 산정특례 환자의 혈당측정검사지·채혈침·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와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자가도뇨카테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도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

-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에 따른 반복·중복 진료를 줄이기 위해 2027년부터는 외래진료를 연 300회 초과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함께 공포되어, 건강보험료 정산과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도 정비될 예정
- 금번 하위법령 개정은 과도한 외래 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

구분	시행일	달라지는 주요 사항
과도한 외래이용 관리 및 의료이용내역 확인	2027.01.01.	• 본인부담률 90% 적용 기준 : 연 365회 초과 → 연 300회 초과
	2026.12.24.	•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 기반 마련
추가보험료 분할납부	2026.10.01.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추가보험료 1만 80원(26년 기준) 이상이면 신청 가능
연말정산 자료 연계	2026.10.01.	• 사업장 통보기한 3월 10일 → 3월 31일
급여·비급여 관리	공포일	• 직권 조정 사유 및 미등재 약제의 비급여 분류 명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난 8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지역 균형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
- 개편안의 핵심은 △자산지소 △균형성장 △산업경쟁력 회복으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등으로 구성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 요금' 항목을 신설하여 전국 11개 지역별로 요금 차이를 적용
 -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적용 대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으로, 일반 주택과 달리 전기요금 차이를 고려한 기업 입지 선택과 전력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 가능
 - 상세 지역 구분은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력으로 분류하고 이를 조합하여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할 계획이며, 각 지역 요금은 도매시장과 송전망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차이를 바탕으로 송전비용·전력자급률·균형성장 요소를 종합고려해 산정
 - 인천 등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강원·충청 등 중부권은 최대 15원, 원전·재생에너지 등이 밀집한 남부권은 최대 18원까지 전기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주도는 금번 적용 지역 대상에서 제외
 -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 도입 등 시장제도 개선과 정부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향후 제도 시행에 따라 전력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산업통상부

- 지난 9일 산업통상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가파른 수출 성장세에 발맞춰 연내 120조 원, 2027년까지 14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내용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
- 산업부는 해외 거래처 신용정보 부족으로 충분한 보증 한도를 제공받지 못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①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한 '1+3 금융지원 패키지' ②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무료 지원 ③보험·보증 외 투자가 가능한 신규 무역금융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
 - '1+3 금융지원 패키지'는 일반보증 이용이 어려운 기업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특례보증 공급액 확대와 △상생 무역금융재원 10조 원 규모 조성 △매출액 기반 수출성장금융 보증한도 2배 이상 확대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 1조 원 공급 등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
 - 또한 수출 초보기업을 위해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5건 무료 제공,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협약기관 확대 등을 추진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연내 「무역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서비스·재화 제공 후 매달 사용료를 받는 구독형 수출 등 전용 보험상품도 선보일 예정

#관계부처합동

-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시행
 - 금번 지침은 그간 용역·민간위탁으로 나뉘었던 보호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도급·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

구분	주요 사항
하도급의 원칙적 제한, 사전심사 및 승인 절차	•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 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 허용 • 하도급 적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발주 기관의 승인 필요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강화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 △도급 계약 기간은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 △입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및 계약 시 반영
노무비 구분·공개·지급·확인	•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작성·공개 • 노무비는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지급, 임금과 퇴직급여 총당금 외 회사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이익잉여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계약 전 과정 관리 강화	• (입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시중노임단가 적용 및 동종·유사 직종 단가 적용 • (선정·계약)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심사 및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사항 계약서 명시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 및 제대로 된 관리·감독	• 발주·원도급 노동자와 같은 장소 근무 시 동일한 노동환경, 동일한 교대제 방식 운영 • 이행력 제고를 위해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 자체 점검 및 정기 지도·점검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난 9월 15일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2027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로 경쟁입찰에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되며,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
 -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민간 발전사 등에 대해서는 설비용량 단위의 공급의무자 및 목표 관리대상자 지위를 부여해 국가 보급 목표에 따른 계획적인 보급을 담보할 계획
 - 한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계약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몰*되며,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운영하여 시장 충격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환을 유도
 - * 기존 사업자 대상 공급인증서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
- 기후부는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기후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

참고 자료

- 소상공인365, www.bigdata.sbiz.or.kr.
- 국가법령정보포털, www.law.go.kr.
- 국가통계포털(KOSIS), www.kosis.kr.
- 관계부처합동, “온기가 지방으로 펼쳐지는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2026.03.25.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 2023.12.
- 인천연구원, 「지역상권의 체험경제 강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및 활용 체계 구축」, 2025.10.31.
- 중소벤처기업부, “상권의 활력을 전국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상권 육성”, 2026.04.01.
- 중소벤처기업부, “활력있는 지방상권·전통시장을 위한 「지역상권 육성」, 「백년시장」 대상지 최종 선정”, 2026.06.17.
- 중소벤처기업부, “K-컬처를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추진”, 2026.04.20.
- 중소벤처기업부, “유망 로컬·수출 소상공인 발굴한다... ‘혁신 소상공인’ 통합 선발”, 2026.06.22.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에서 세계로(Local to Global) 중기부, 수출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 선정”, 2026.06.26.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을 넘어 지역대표 브랜드로! 혁신 소상공인 TOP 11 선정”, 2026.09.10.
- 인천광역시. “인천시, 상권별 맞춤 전략 만든다...상권브랜딩 지원사업 추진”, 2026.03.08.
- 인천광역시, “2026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2026.03.12.
- 인천광역시, “인천시, 소공인 로컬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추진”, 2026.03.13.
- 인천스펙타클, “인천 개항장 로컬브랜드 인사이트 투어”, 2025.
- 인천관광공사, “워케이션부터 로컬 살아보기까지, 인천에 머무는 8가지 선택”, 2026.07.06.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2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정부, 생활권·디지털 중심 개편”, 행정안전부, 2026.08.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자동 차단’, 행정안전부, 2026.09.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 확대”, 보건복지부, 2026.09.0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보건복지부, 2026.09.0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업용 전기요금, 11개 지역별 차등 반영...남부 최대 10% 저렴”,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공급 확대...올해 120조·2027년 140조 원”, 산업통상부, 2026.09.0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2년 이상 계약 및 고용유지·승계 보장”, 관계부처합동, 2026.09.0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15년 만에 개편...경쟁입찰·고정가격 계약”,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15.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9호(2026.09.30.)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6년 09월 30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